

[사회]

법정 가는 '화려한 휴가'

정호용씨 등 27명 명예훼손 고소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법정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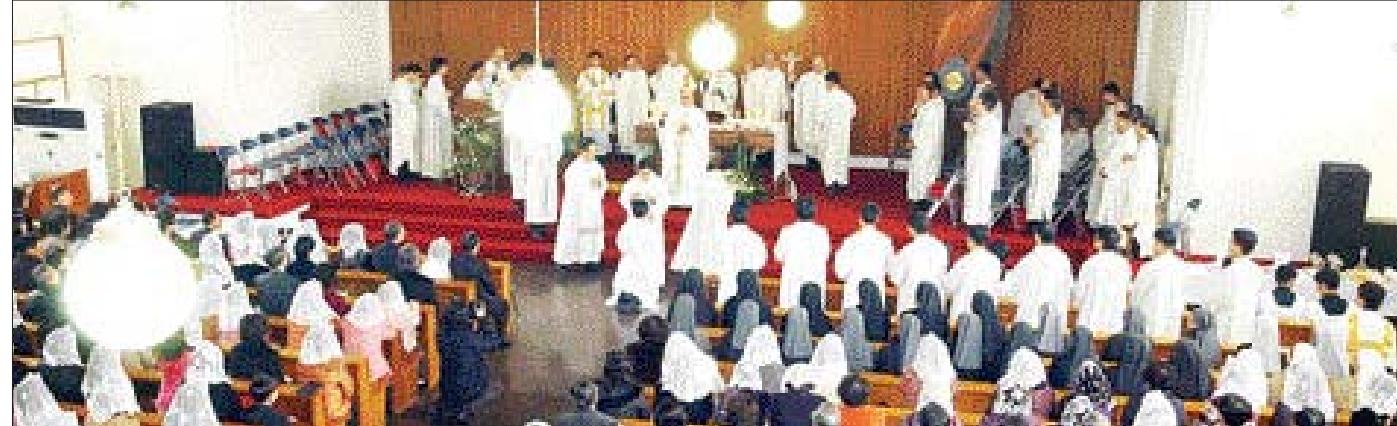
김영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박세직 재향군인회장·정호용 씨 등 전직 특전사령관 등 27명은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기로 했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영화에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수부대와 국군 및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진압을 하였던 공수부대가 저항 조차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과 폭행을 가하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했다"면서 "그럼에도 영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자막을 삽입, 11공수여단과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제 서품식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쟁촌동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사제(司祭) 서품식. 서품을 받게 되면 천주교 사제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위저링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초·중·고 설치 조명기구 '불량'

감사원 적발 안정기 2만5천개 계약과 다른 저급품

관급구매 방식으로 설치된 광주시내 학교의 조명기가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15개 초·중·고교 19건의 조명 공사에 납품된 직경 26mm인 32W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2만5천여개(9천700여만원 상당)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안정기는 형광등 속에 설치돼 효율을 높이는 작용으로 KS 인증까지 받았으나 실제 납품된 것들은 주요 부

품이 빠져있는 상태였다"며 "구입은 조달청의 조명기가 불량품인 것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초교와 Y중, S중의 경우 정전기 및 과전압 방지용 '배리스터'(varistor)가 없었고, M초교와 W중 등 3곳에서는 전자파 장애(EMI)를 감소시키는 'Y콘덴서'가 빠진 채 시공됐다.

Y초교와 W중, C고 등에서는 유해 전자파 노이즈 차단 역할을 하는 '라인필터'(line-filter)가 누락된 채 각각 1천796개, 1천588개, 705개의 불량 안정기가 납품됐다.

전자식 안정기 생산 업체는 전국적으로

40~5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고효율 전등기구를 납품하겠지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나 한전 등으로부터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계약과 다른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적발된 업체들에게 2008년 말까지 불량제품을 정품으로 모두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 외에도 이들 업체로부터 안정기를 공급받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량 전등은 전력 소모량을 증대시키고 잦은 고장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서울대, 내년부터 교수 수시 특채

서울대는 교수를 수시로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수 특채는 단과대 또는 해당 학과(부)가 학문 분야와 특성에 맞게 스스로 채용 기준을 정한 뒤 대상자를 불색해 추천하면 대학 본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채 규정 정비는 논문 편수 등 연구실적에서부터 최종 면접의 면접관 수와 구성 비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국립대 교수 채용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는 겸임교수 제도를 도입해 교수들이 강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방학이나 안식년을 활용해 해외 대학에서 단기 연구 프로젝트나 집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겸임교수 제도는 외부 공공기관·국책 연구소·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서울대에서 비전임 교원 자격으로 공동 연구와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고려대·연세대 수시 2 논술 살펴보니

인문학·과학 '통합형 논술'에 비중

지난 24일 끝난 고려대와 연세대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고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을까?

고려대 인문계의 경우 '감정노동'(자신의 진짜 감정과는 상관없이 감정 규칙에 따라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직)이라는 주제로 이에 관한 설명문, 인간 소외를 다룬 김기택의 시 '사무원', 보건·사회복지 종사자 수에 관한 통계표 등 4개의 제시문

을 제시한 후 지문 요약과 해설, 제시된 통계 추이를 한국사회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자연계 논술에서는 수학 I의 '확률', 물리 I의 '저항의 연결'과 '파동의 굴절', 화학 I의 '금속의 반응성', 생물 I의 '항상성' 등 수리와 과학 교과의 다양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항 5개가 출제됐다.

연세대 인문계 논술에서는 '중용'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에서 발췌한 제시문 4개를 주고 중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 지문이 제기하는 주장들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3문항을 출제했다.

특히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인문학과 과학의 '통합형 논술'에 비중을 둘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 I·II의 합수 및 미·적분 개념에 관한 문항, 물리 I의 '파동'과 지구과학 I의 통합적 이해와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화학 I의 '질소의 순환'과 생물 I의 연관 문항 등이 출제됐다.

/연합뉴스

먼지바람 조심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11월 26일
(음 10월 17일)
◇전국날씨

주	구름 많음	3~14°C
포	구름 많음	4~13°C
여	구름 많음	7~14°C
수	구름 많음	3~14°C
원	구름 많음	-1~14°C
도	구름 많음	-1~14°C
한	구름 많음	-1~14°C
해	구름 많음	-1~14°C
남	구름 많음	1~14°C
쪽	구름 많음	1~14°C
강	구름 많음	1~14°C
경	구름 많음	1~14°C
인	구름 많음	3~14°C
천	구름 많음	3~14°C
전	구름 많음	3~14°C
남	구름 많음	3~13°C
원	구름 많음	0~13°C
죽	구름 많음	8~11°C

서해남부
안나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만나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2:37 15:29 셀룰 < 20:45

여수 밀물 < 10:09 22:11 셀룰 < 16:15

▲해뜰 07:17 ▲해짐 17:22 ▲달중 18:42 ▲달침 09:10

◇주간날씨

날짜	27(화)	28(수)	29(목)	30(금)	12/1(토)	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10	2/12	2/11	1/11	2/12	2/12



한국 급성질환 의료 OECD 최하위권

뇌졸중·심근경색 사망률 회원국 평균 2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급성 질환에 대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공개한 '건강지표 2007' (Health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보고서의 '의료의 질' 분석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급성질환 의료' 분야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AMI)'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18.6%로 벡시코(24.5%)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회원국 평균(10.2%)의 두 배이자 사망률이 가장 낮은 뉴질랜드(5.4%)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급성 질환에 대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공개한 '건강지표 2007' (Health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보고서의 '의료의 질' 분석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급성질환 의료' 분야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AMI)'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18.6%로 벡시코(24.5%)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회원국 평균(10.2%)의 두 배이자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은 83.4%에 달했다.

한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은 83.6%로 OECD 평균(83.6%)과 비슷했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80.1%로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수·가전 가구·사무용품 초특가

SALE!!